

## 수필이 있는 풍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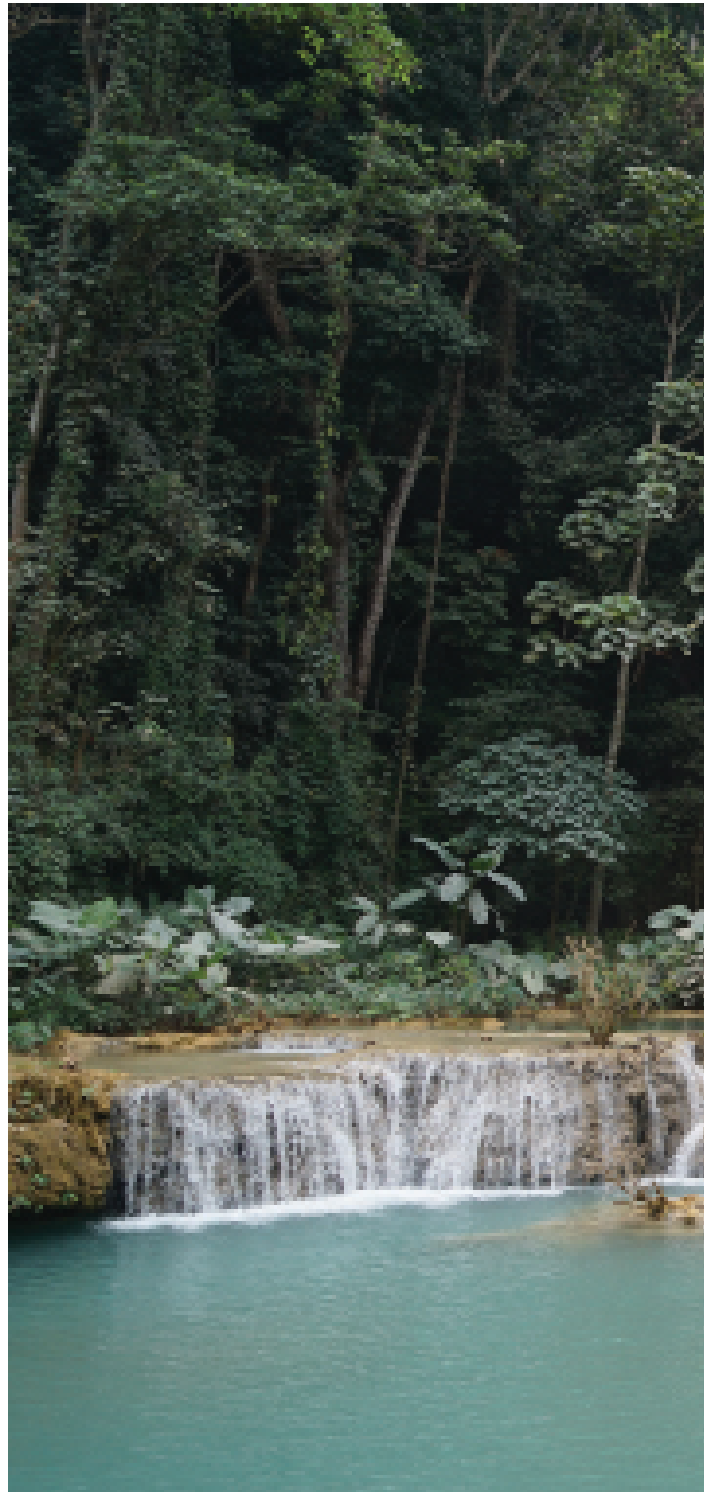
**권영주**  
하트스캔 심장내과 원장  
순천향의대 명예교수

**#1 광시폭포**

광시폭포는 라오스 루앙프라방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폭포다. 폭포 밑으로 고여 있는 옥빛색깔의 물빛은 평안한 마음을 준다.

자연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자하는 라오스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순박한 소승불교민족으로 자동차 사고가 나도 서로 웃는다. 생활은 어렵지만 여유 있고 담담한 있는 그대로의 생활 속에 행복함이 있다. 이른 아침 탁발하는 스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길가에 경건하게 늘어선 라오스 사람들의 이른 아침행보는 초기 불교의 근본자세를 수천 년간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맨발의 스님이 탁발공양 받을 때의 의연함과 손수 지은 따듯한 밥 공양을 공손히 드리는 이 풍경은 저절로 감동스러워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스님들은 탁발하고 발 씻고 앉아서 공양 받고 수행하는 것이 불법이요 우리들의 복잡한 삶 자체도 연기에 의한 불법자체이다.







## #2 한강일출

태양계에서 지존의 진리인 태양을 느끼고 있는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진리인 태양은 오늘도  
어김없이 하늘에 존재의 모든 것을 비추면서 환희  
받아온다. 그 어느 누구도 태양의 존재와 진리에  
의문을 품고 고개를 갸우뚱 조차 하지도 못한다.  
다만 두 손 모으고 경배의 마음과 고마움으로  
온몸을 휘감는 찬란함과 따뜻함을 느낀다.

각박한 생존의 몸부림 속에서 허둥대는 생명체는  
물론 누구에게나 따뜻함과 밝음을 선물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그 엄청난 생명의 힘을 선물  
할뿐이다. 우리는 경이로운 우주 진리의 모든 것을  
받으면서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진정한 진리의  
고마움도 잊어버리고, 또한 존재조차도 잊어버리는  
바쁜 삶속에 놓여있다. 한강위로 떠오른 이른  
아침의 태양의 모습 속에 또 한 번 옷깃을 여미고  
진리 속에 있는 세상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긴다.